

봄꽃이 따스한 남녘 바람을 실어오는 계절입니다. 우리 농촌에도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에서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업이 농업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선순환적 증산 정책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쌀의 소비가 1980년대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져 재고량이 쌓인다고 생산을 줄이는 소극적인 농업 정책으로는 우리의 식량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쌀의 자급률이 80%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쌀 자급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쌀의 생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됩니다. 쌀의 생산을 늘이고 수요를 획기적으로 창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금년도 연구과제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쌀의 증산과 수요창출 방안을 찾아내는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2013년 4월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 학 용**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이 철 호**

시 간	내 용
13:30	등 록
14:00	개회식
	개회인사 김학용 의원
	축 사 이동필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외
	환영사 박관희 회장 (한국쌀가공식품협회장)
14:30	주제발표
	쌀의 수급현황과 문제점 (성명환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의 자급과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이철호 교수,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15:30	종합토론
	- 좌 장 : 신동화 교수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 토론자 : 김용택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상희 실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송광현 전무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심재규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위남량 박사 (농협중앙회 양곡사업부)
	윤홍선 박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정환 박사 (GS&J 인스티튜트)
16:40	질의 및 응답
17:00	폐 회